

오픈소스 이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행정업무 전반 스마트행정 구현 시청서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착수보고회 열어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을 청취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시는 최신의 공간정보를 기반한 시정업무 지원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1차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2차 사업으로 공간정보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구축될 공간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편집 기능 구현 △세무, 환경, 복지,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등 데이터 연계·공유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통합 △공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그간의 공간정보 운용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정업체에 종속적이지 않고 기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픈소스를 기반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

드를 공개해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사용·복제·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시가 이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공간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도시행정 분야에 활용해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와 운용 소프트웨어의 단종에 따른 기술지원 불가로 시스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오픈소스를 이용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공기관 선진사례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독점을 막는 것은 물론,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행정의 전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로 협의회 구성원들은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모의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시대적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해 전주시가 공간정보 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직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행정을 구현에 나갈 수 있도록"이라며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전주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3년 연속 획득 장애인·고령자까지 편하게 사용 가능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가 3년 연속으로 장애인 등 정보 접근약자들을 배려한 좋은 홈페이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시청 홈페이지가 한국 웹접근성인증평가원의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인증기준인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키보드 사용 보장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등 24개 준수항목에 대한 사용자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홈페이지는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페이

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이미지 등에도 대체 텍스트를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동영상 재생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도 삽입, 정보접근약자들도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코인노래연습장 지도점검 실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개소(전체 노래연습장 300여개)에 대해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세대의 급증으로 이른바 혼족(혼자서 식사, 문화생활 등)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코인 노래연습장'이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점포의 무인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주 이용층인 청소년들이 쉽게 탈선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계획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청소년들이 심야에도 자유롭게 출입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 음주 등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무인 운영여부, 시설기준 적합성, 청소년 이용에 따른 관리자 준수사항(신분증 확인, 이용시간 준수 등 탈선방지 관련)이행여부 등이다.

완산구 나경욱 가족청소년과장은 "침체되었던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젊은이들이 찾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위험행위에는 강력한 단속 및 지도관리를 통해 더 많은 세대에서 사랑받는 건전한 문화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먹음직스러운 국산 체리 국산 체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리 품종 평가회가 지난 5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오토트리 하우스에서 열린 가운데 국산 체리가 테이블에 놓여져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주시, 골목상권 활성화 전국 '최우수'

2017년 나들가게 육성 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소상인 지원으로 골목슈퍼의 자생력·경쟁력 향상 기대

전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한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들가게 육성 사업을 수행한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7년 나들가게 육성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등의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정책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로 3년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7개소 △경쟁개선 173개소 △점주역량강화교육 140개소 △해의견화 8개소 △공통세일전 113개소 △지역특화사업(23개소) 등을 지원, 침체된 동네슈퍼를 나들가게로 육성·지원하는데 힘써왔다. 그 결과 참여한 동네슈퍼의 매출액이 사업 전보다 4.1% 상승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 받게 됐다. 또, 나들가게 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에 해외벤처마케팅 특전도 받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3년째 총 11억원(국비 8억, 시비 3억)의 예산을 투입해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지원, 점주역량강화, 지역특화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사업 시행 3차 년도인 올해는 나들가게 육성사업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나들가게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나들가게 협업화와 조직화에 힘쓰고,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가 아닌 나들가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대형유통기업과 함께 경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골목슈퍼의 자생력 및 경쟁력 향상에 기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접수

내달 2일까지 주민센터 등에 이의신청 가능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 비교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문화축제행사 대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게시된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문화축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단오제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 다가오는 문화행사에 대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에 나선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14일부터는 거리에 게시된 선거홍보물과 선거관련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0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과 덕진공원, 국립문화유산원, 한옥마을 등 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등을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를 이용해 각종 행사와 공연, 축제 홍보, 음식점 광고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곳에 집중 게시돼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차량 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이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정비를 통해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광고주와 부차·배포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